"헹님아~ 재밌제, 내년에 또 온나~"

화보 - 송정에서의 2박 3일의 기록

▲ 코헴 여름 캠프 입소 대표자 선서

▲ 참가자들이 힘을 합쳐 꾸민 '코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화이팅!'

▲ 어머니들이 부르기도 하고…

▲ ○×퀴즈는 열띤 참가열기로 진행이 어려울 정도였다.

▲ 하루의 일과를 여는 아침체조

▲ 가장 좋은 프로그램으로 꼽힌 하모니카 배우기

▲ '헹님아~ 저게 바다가?' - 바다에 선 혈우 어린이들

▲ '엄마 물이 짜' - 바다의 아이들은 신나기만 하고 어머니도 절로 기뻐진다.

▲ 마치 영화 '친구'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모습. '니 조오련하고 바다거북하고 수영하면 누가 이기는 줄 아나?"

▲ "자가주사가 되면 여행도 쉽게 다닐 수 있지" 주사교육 장면

▲ 부모님들은 그동안의 경험을 나누는 진지한 시간을 가졌다.

▲ 전임 이명동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는 김연수 회장

▲ 혈우가족의 학교생활을 풍자한 연극을 선보인 참가자들

▲ 혈우 어린이를 키워주시느라 고생하신 할머니들도 캠프가 즐거우는 마찬가지

▲ 김연수 코헴회장과 재단 사무국의 구태형 주임이 함께 부른

유전자 치료 연구 고무적이나 과제도 많아

제 19회 세계혈전지혈학회 참관기

김 영 호〈재단의원장〉

제가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영국 버밍엄에서 열렸던 세계혈전지혈학회(ISTH)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세계혈전지혈학회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것으로서 혈전으로 인한 질환-혈액이 응고된 덩어리가 혈관을 막아 발생되는 질환-과 지혈이 잘 안되는 질환-혈액이 잘 응고되지 않아 출혈이 일어나는 질환-에 대해 임상적인 측면과 기초의학적인 측면을 다루는 학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혈전·지혈 분야의 내노라 하는 학자들을 비롯하여 수 천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저도 과거 대학병원 전공의 시절에 교수님을 따라 국제 학회에 참석한 적은 있으나 혼자서 이런 큰 국제 학회에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 긴장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놓았던 영어공부도 몇 개월 전부터 다시 하는 등 나름대로 이번 학회 참석을 위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학회 일정은 13일 오후부터 시작되어 18일 오후까지 빡빡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전체 참석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시작되어 여러 주제의 구연과 심포지엄이 동시에 여러 강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강의를 들을 수는 없었고 본인이 관심이 있는 강의를 선택하여 들어야 하였습니다.

저는 주로 혈우병과 관련된 강의를 선택하여 들었습니다. 혈우병 분야에서는 항체, 유전자 치료, 예방요법 등에 관한 강의가 많았습니다.

혈우병 치료에 있어서 항체 발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였습니다.

항체가 생기는 환자들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유전자의 어떤 이상이 있는 부류에서 항체가 잘 생기는 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향후 항체가 생길 환자들을 미리 예측하고자 하는 시도들, 또 항체가 생겼을 때 면역 관용 요법을 시행한 것에 대한 결과발표가 있었고, 특히 제가 재미있게 들었던 강의는 항체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이를 실

험 동물에 주입하였을 때 항체를 어느 정도 중화시킬 수가 있어 응고인자의 활성도를 어느 정도 높게 유지할 수 있었다는 연구와 갓 태어난 실험 동물에게 응고인자를 주입함으로 이를 외부 물질이 아닌 자신의 신체 일부로 인식하게끔 만들어 항체 발생을 감소시키려는 시도들이었습니다.

예방요법에 대한 연구에서는 스웨덴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투여되는 응고인자량이 많아 우리나라의 현재 형편에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주로 연구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미국, 캐나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로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들이어서 부러움을 자아내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들은 예방요법까지 시행하고 있지만 반면에 아직도 전 세계 혈우 환자들 중 80%는 혈우병에 대한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는 코헴 회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몇몇 연구팀에서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1상 실험이 시행되었고 그 예비 결과가 나왔는데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의문점과 해결해야 할 점들을 남겼습니다.

응고인자 활성도 면에서 보자면 동물 모델에서 나왔던 결과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임상적으로 출혈 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응고인자 활성도를 최소 5%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유전자 치료제를 주입한 혈우병 환자들에게서 응고인자 활성도가 이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활성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치료를 한 여러 환자들에게서 응고인자 활성도가 1% 이상으로 얼마동안 유지되었고 그 결과 유전자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출혈빈도가 감소한 것은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체발생 면에서 볼 때, 유전자 치료를 한 환자들에게서 항체 발생이 없었습니다.

아직 결론짓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고무적

인 일입니다.

한편 안 좋은 결과도 있었는데 생후 3개월에 유전자 치료를 시작한 2명의 소아에서 유전자 치료한 지 2년 후에 백혈병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직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는 너무 낙관도 비관도 하지말고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학회에서는 출혈성 질환의 하나인 폰 빌레브란트 병에 대한 심포지엄도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그 빈도가 많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등록 환자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폰 빌레브란트 병은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아마도 자신의 병에 대해 잘 모르고 지내는 환자 분들도 적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들은 예방요법까지 시행하고 있지만, 전세계 혈우환자의 80%가 전혀 치료를 못받는 현실이 안타까워…

영국까지 왔으니 되도록 많이 보고 듣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아침 7시부터 시작되는 조찬 모임(breakfast meeting)에도 2일간 참여하고 부지런히 돌아다녔으나 아무래도 언어의 장벽도 있고 강의 내용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 모두 다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외국 나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이 부럽더군요.

코헴 회원중 학생 여러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다 나중에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컨벤션 센터에서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곳에서 도보로 10여분 떨어진 곳에서 포스터가 전시되었습니다. 포스터 전시란 연구결과를 큰 종이에 기록하여 전시해 놓은 것으로 하루에 수백 장의 포스터가 이곳에 붙여졌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 제목과 결론만 보는데도 몇 시간은 족히 걸리고 또 전시되는 포스터가 매일 바뀌므로 학회 기간 중에 전시된 포스터는 다 합하면 2천장이 넘었습니다. 수 천 명의 사람들이 컨벤션 센터와 이곳 포스터 전시장을 오가는 모습은 국제 학술대회임을 실감케 하였습니다.

학회가 열렸던 버밍엄은 인구 100만의 도시로서 시내에 운하망이 광범위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이 운하위로 보트가 떠다니고 또 오리들이 무리지어 헤엄쳐 다녀 낭만적인 광경을 연출하였습니다.

영국은 비가 자주 오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우산을 준비해 갔으나 다행히도 학회 기간 중에는 날씨가 맑고 화창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영국에서 잉글랜드 지역은 평야 지대라서 주변에 산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버밍엄 교외로 나가면 저 멀리 지평선이 보이고 푸른 하늘과 곡식을 심은 밭, 또 그 주변의 녹색의 나무들이 잘 어울어져 멋들어지더군요.

이번 학회 참석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현재 이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고 듣고 온 점이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회 참석을 위해 자리를 비운 원장을 이해해 준 코헴 회원 여러분과 또 원장의 빈 자리를 잘 메꾸어준 대진의 선생님과 재단의원 식구들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헴

혈우병의 물리치료(2) - 근육신장과 근육강화(stretch)

혈우병을 가진 어린이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운동은 꼭 필요하다.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관절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근육을 강화하고, 자연출혈을 감소시키는데 있다. 다음에 나오는 운동법은 출혈이 발생한 근육과 관절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법들이다. 이 운동법들을 열심히 연습하면 근육이나 관절의 손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혈우센터의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다음의 운동법 중에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몇몇 운동을 선택하여 줄 수도 있다. 운동을 할 때에는 다음의 예방조치를 잘 따라야 한다.

- 담당 의사나 물리치료사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한다.
- 만일 운동 중에 출혈이 일어난다면 즉각 운동을 멈춰야 한다. 출혈이 멈추고 관절과 근육이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였을 때 다시 운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 운동은 규칙적으로 하여야 한다. 각 운동의 횟수와 강도는 천천히 증가시켜야 한다.
- 의사나 물리치료사의 지시 없이 운동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모래주머니 등으로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 운동의 강도를 높이고 싶다면 반드시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의하여야 한다.(무게가 나가는 기구(모래주머니, 아령 등)를 이용하여 운동하는 것을 '부하운동'이라고 한다. 부하운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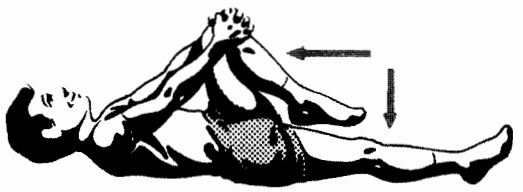
스트레칭

모든 스트레칭은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드럽게 움직이며 결코 과도하게 근육을 신장시키려 하지 말라.

1

비행기 : 배를 깔고 엎드리고 두 손은 다리 옆에 붙인다. 팔과 다리를 동시에 위로 들어준다. 이 상태에서 다섯을 센 다음에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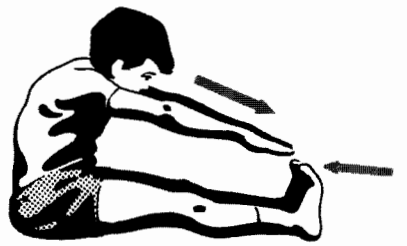
2



무릎 당기기 :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다음 그림과 같이 한쪽 무릎을 천천히 올린다. 다른 발은 쭉 뻗은 상태로 유지하며 들어 올린 무릎을 두 손으로 잡고 가슴 쪽으로 당긴다. 다섯을 센 후 다리를 내리고, 다른 쪽 무릎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3

발가락 닿기 : 다리를 앞으로 쭉 편 상태로 앉은 다음 두 손을 들어 발가락 끝에 닿도록 하면서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준다. 이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을 셀 동안 이 자세를 유지시켜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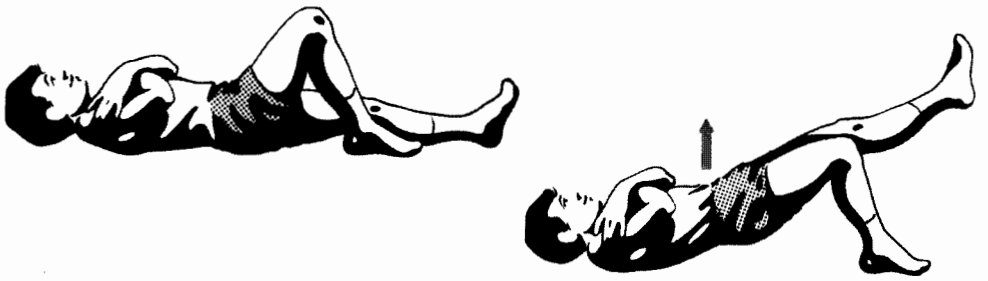
근육 강화 운동

근육 강화운동 역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빠르게 많은 횟수를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근력 강화에 더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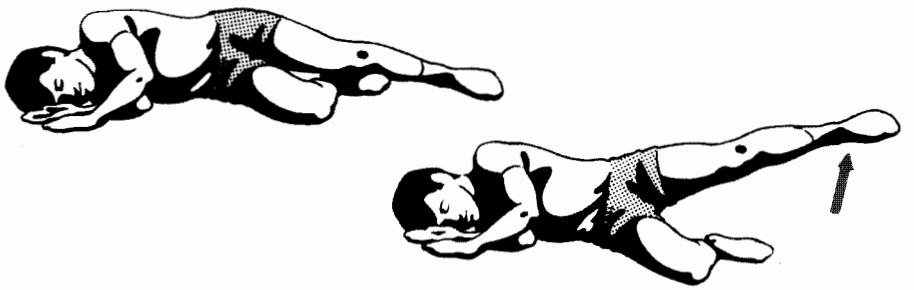
1

브릿지 : 그림과 같이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서 무릎을 굽히고 발바닥은 바닥에 붙인다. (두 팔은 그림과 같이 교차하여 어깨에 올려놓는다.) 등을 바닥에서 떼어 최대한 위로 들어올린다. 이 상태에서 다섯을 세고 몸을 바닥에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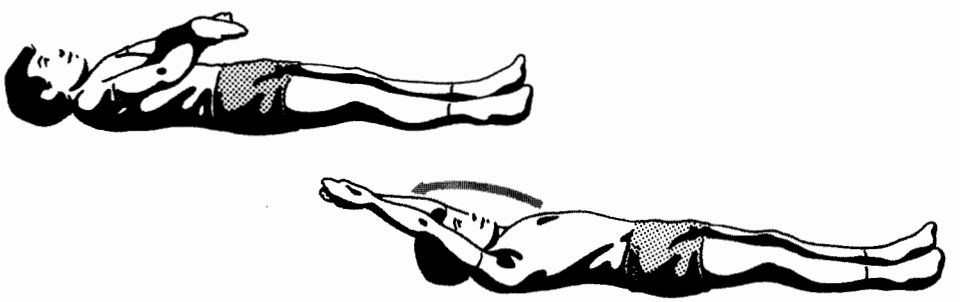
2 한 발 브릿지 : 앞의 브릿지와 같은 방법으로 누워 한 발을 쭉 뻗는다. 팔은 브릿지 자세와 같이 양쪽 어깨 위에 올려놓는다. 이 상태에서 등을 바닥에서 떼어 최대한 위로 들어 올린다. 이때 쭉 뻗은 발도 함께 들어올린다.(굽혀지지 않아야 한다.) 다섯을 센 후 누워있는 자세로 돌아가고 발을 바꾸어 다시 자세를 취한다.



3 옆으로 누워 다리 들기 : 옆으로 누운 다음 위쪽의 다리를 쭉 편 상태로 위로 든다. 이때 아래쪽 다리는 균형을 잡기 위해 굽힌다. 그러나 몸은 곧은 상태여야 하고 아래쪽 다리의 발끝도 몸과 일직선이 되어야 한다. 다리를 든 상태에서 다섯까지 센 후 내리고 다른쪽 다리를 올린다.(부하를 증가시키고자 한다면 모래주머니와 같은 것을 발목에 위치하게 하여야 한다.)



4 머리 위로 팔 뻗기 :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다음 두 팔을 쭉 편 상태로 배 위에서 손목 부분이 교차하도록 한다. 팔을 천천히 들어올려 머리 위를 지난 바닥에 닿도록 한다. 다시 천천히 처음 자세로 돌아온다. (부하를 증가시키기 위해 양 손에 무게가 나가는 것을 쥐고 할 수 있다.)



지금의 합격은 앞으로의 긴 여정의 시작

박 기 범

지난 6월 6일 저녁 7시.

저는 컴퓨터를 통해서 경기도 교육청 교육행정직 공무원 최종 합격자 명단에서 저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9개월 간의 수험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9개월 간의 수험생활을 할 수 있게 저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재단에서 수험생활에 대해 원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수험생활을 하는 동안 취업지원을 통해 재단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혈우병 환자로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었기 때문에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다닐 때 신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취업 걱정이나 진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졸업반이 되어서 저의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길이 나에게 맞는지 저에게 수없이 물어 보았으나 자신이 없었습니다.

때늦은 진로 걱정은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남들처럼 취업 준비한다고 토익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또한 혈우병은 진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민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직업들을 살펴보았지만 저에게 맞는 직업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공무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혈우병이 결코 큰 장애물이 안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들어가서도 보람을 느끼면서 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공무원 시험 정보가 있는 여러 사이트를 보면서 학원 강의를 통해 준비하는게 시간적으로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서울 노량진에 다니면서 저의 수험생활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수원에서 노량진까지의 통학거리는 결코 쉽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특히 수업이 많은 날은 계단을 많이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무릎이 자주 출혈됐습니다. 하지만 노량진 학원가에서 학원 강의 접수를 위해 몇 시간씩 서 있고 앞자리에 앉기 위해 1~2시간 전부터 교실 밖에서 기다리는 수험생들의 열기를 보면, 항상 저에게 충격을 주었고 수험생활을 꾸준히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꾸준히 하면 걱정없이 합격이라는 단어가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지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경기도 교육

행정이 올해 갑자기 5월 3일에 공고가 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행정직은 국가직 시험이 끝난 이후 2~3달 후 시험이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5월에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일반행정직을 준비해온 전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경기도 교육행정 공고가 4월에 났기 때문에 교육학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 밖에 없었습니다. 교육행정직 시험이 있고 그 달에 2번의 시험이 더 있었습니다. 교육행정직을 준비한다면 2번의 남은 시험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육학 특별강좌가 제가 사는 지역에 개설되었습니다. 뜻밖에 교육학을 준비하기에 좋은 환경은 교육행정직을 지원하는데 망설임 없게 해주었습니다. 경기도 교육행정직에 관심이 많았던 전 학원에 다니면서 교육학을 준비하고 합격이라는 단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을 보면서 느낀 건 혈우병 환자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몇 가지를 꼭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에는 상당히 많은 직렬이 있습니다. 그 많은 직렬 중에서 과연 자기가 가서 그 직렬에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직이나 교정직, 소년보호관찰직, 정보통신부 그리고 전산직은 업무자체가 동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반면에 일반행정직, 교육행정직, 법원직은 업무자체가 정적이고 신체적인 활동량도 적습니다. 제가 교육행정직을 지원한 이유 중 하나가 업무자체가 정적이며 신체적인 활동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수험생활 하는 동안에 기본적인 운동과 식생활을 통해서 건강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활 하는 동안 자기 건강 관리를 하는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 처음에는 공부만 하는데 건강 관리를 할 필요가 있나 생각했지만 이건 저의 큰 실수였습니다. 시험 보기 몇 달 전부터는 무릎이 자주 출혈됐고 특히 의자

에 오래 앉아 있는 이유로 아프지 않던 엉덩이가 자주 출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엉덩이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우병환자가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합격하고서 있는 신체검사 과정이라고 봅니다. 공무원 결격사유에 치료에 저항성이 있는 혈우병환자라는 좀 애매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 자체가 애매해서인지는 모르지만 병원에서 신체검사 받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코헴 청년분들 중에서는 공무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사시는 분들은 가능하다면 학원을 다니시면서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는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수험생활 기간 자체를 단축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원 다니기 힘드신 분이거나 지방에 다니시는 분들은 인터넷 동영상이나 테이프를 통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하는게 시간적으로 상당히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합격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땐 모든 게 다 이루어진 줄로 생각했지만, 합격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작은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에 작은 발을 들여놓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준 코헴에 감사 드리며 많은 코헴 청년분들이 원하는 곳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코헴

52호 정답 및 당첨자

지난 호 퀴즈에 모두 열 여덟분이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방조제'를 '방파제'라고 적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해안에 쌓은 뚝의 개념에서는 비슷하나 엄연한 차이가 있어 오답처리 하였습니다.

'코헴'지는 혈우병을 제대로 알리고, 혈우병에 대한 정보와 혈우가족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혈우가족의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겪으신 일들은 다른 혈우가족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됩니다. 혈우병을 겪으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셨던 어려움, 아쉬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글로 전해주십시오.

혈우가족 여러분의 진솔한 얘기가 전해질 때 혈우병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지고 혈우병 극복이 당겨질 것입니다.

보내주시는 글은 모두 소중이 여겨질 것이며,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료료가 지급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여	름	방	학		소	수	정	예
행		조		영	고			방
기	우	제		랑		사	스	
	이		동	호	회		위	성
여	독		네		람	세	스	
	경	상	북	도		계		고
고		수				일	주	문
저	고	리		삼	각	주		진
	삐		오	한			가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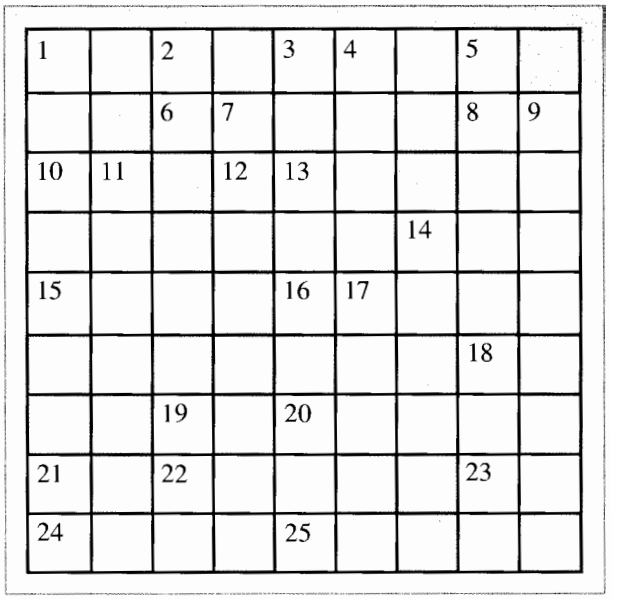
▲ 정답자 : 남경훈(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문민영(전북 익산시 창인동), 박민홍(강원 홍천군 홍천읍), 박상혁(안양 동안구 호계동), 백종희(경북 성주군 초전면), 오대은(광주시 서구 상무동), 이병길(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이영옥(광주시 서구 풍암동), 조승현(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가나다 順

낱말 맞추기

'코헴지'에 동봉한 엽서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글도 받습니다. 평소에 전하고 싶었던 말, 생각나는 이야기 등을 보내주시면 '코헴'지에 게재하고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9월 8일까지 재단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편집실〉



<가로풀이>

1. 시와 군·구에 설치한 보건 행정 기관.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곳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용과 범이 서로 싸운다는 뜻으로 '힘이 강한 두 사람이 승부를 겨룸'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6. 처마 끝에 달아 바람에 흔들려 소리가 나게 하는 경쇠.
8. 음력 정월 대보름에 노는 민속놀이의 한 가지. 영남과 영동·경기 지방에 전해 온 민중 놀이로, 안동 ○○놀이가 대표적인데, 동서(東西) 두 패로 나뉜 동채를 먼저 땅에 닿게 한 편이 이김.
10. 위와 아래. ○○좌우.
12. '고향 생각에 젖어 시름겨워 하는 것'을 병에 빗대어 이르는 말.
14. 찹쌀이나 찹쌀가루를 시루에 쪄서 절구에 친 다음, 둥글거나 네모지게 썰어 고물을 묻힌 떡.
15. 겉귀의 드러난 부분. 이각(耳殼). 이륜(耳輪).
16. 얼굴이 예쁜 여성을 이용하여 남을 꾀는 계략.
20.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끝이라는 뜻으로 '매우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을 이르는 말.
22. 물건 값을 제하고 거슬러 받는 잔돈. 거스름돈.
23. 남에게 의지하거나, 남의 지배를 받거나 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해 나감.
24. 석탄 가스 따위로 불을 켜는 등. 와사등(瓦斯燈).
25. 예부터 발달해 온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

<세로풀이>

1. 봇짐장수와 등짐장수를 아울러 이르는 말.
2. 천상병 시인의 '귀천'의 일부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아름다운 이 세상 ○○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4. 휴대용 병으로서 물·술·약 등을 넣어서 사용하였다. 생김새는 크기가 다른 둥근 항아리 2개를 위 아래로 붙여 놓은 듯한데,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으며 위쪽에는 물이 나오는 입구를 길쭉하게 만들었다.
5. 말을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하여, 승마용 구두의 뒤축에 댄, 쇠로 만든 톱니 모양의 물건으로 일이 더 빨리 진행되도록 더하는 힘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7. 서울과 시골. ○○각지.
9. 매우 놀라운 일이나 새로운 것을 두고 이르는 말로 지금까지 들어 본 적이 없음. 미증유.
11. '서풍'의 뱃사람 말.
13. 설거지할 때 그릇을 씻는 물건.
14. 어떤 일이나 물건을 남에게 넘겨줌, 또는 남으로부터 이어받음.
17.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내는 소리, 또는 사람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을 만한 기미.
18. '머리를 끈으로 묶어 높이 매달고 허벅다리를 찔러 잠을 깨우다'라는 뜻으로 학업에 매우 힘쓰는 모습을 뜻하는 사자성어.
19. 고래싸움에 터지는 것.
20. 꿀풀과의 낙엽 관목. 높은 산이나 바닷가 바위틈에 절로 자라며, 덩굴져 옆으로 기는 줄기는 단단하고 향기가 있음. 여름에 분홍색 꽃이 피며 잎은 약재나 소스의 원료로 쓰임. 향이 백리를 간다는 말은 과장이 좀 심한 것 같죠?
21. 이성(異性)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 노래. 박용하, 최지우가 출연한 드라마 '겨울○○'가 아시아권에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